

이상 시의 상호 텍스트적 분석

— 특히 '개'의 이미지와 관련된 시를 중심으로

김 주 현*

1. 방법론적 전제—상호 텍스트적 시각

이상 문학의 상당수는 다른 작가의 텍스트와 상호 텍스트적 관계에 놓여 있다. 특히 그의 처녀작으로 일컬어지는 「12월 12일」이 괴테의 작품과 관련이 있음은 이미 필자가 다른 지면을 통해 언급한 사실이다.¹⁾ 한 작가의 글쓰기가 상호 텍스트적 입장에서 쓰여졌을 때, 원텍스트에 대한 검증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 여겨진다. 그것은 어떤 기존의 텍스트 A가 A'라는 새로운 텍스트로 변형이 되었거나 다시 쓰여졌을 때, A는 A'의 의미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A'는 A의 의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나중에 나온 텍스트는 알게 모르게 기존의 텍스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관계가 명시적일 경우 텍스트적 관련을 밝히기가 쉽지만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는 상호 텍스트성을 밝히는데 애로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리고 작품의 해석에 있어

* 박사과정

1) 졸고, 「이상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 「한국문학과 모더니즘」, 한양출판, 1994.

서도 상호 텍스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작품의 해석은 이들의 상호 관련을 통해서 구명해야 한다.²⁾ 특히 난해한 작품의 경우 이러한 작업은 작품해석에 보다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상의 난해한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상호 텍스트적 입장을 취해보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만일 이상의 텍스트가 기존의 어떤 텍스트와 상호 텍스트성을 띠고 있다면, 이는 이상 텍스트의 해석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상호 텍스트는 현상적인 것으로 그것 자체가 도덕적 판단이나, 가치 판단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상호 텍스트가 모방적인 차원에 그 친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이상의 경우에는 변형을 통한 재창조에 중점을 두어 져 있다. 그러기에 이 글은 현상적인 텍스트의 일차적인 해석작업에 치중한다. 이 작업이 이루어진 연후에야 상호 텍스트성을 띤 작품들의 창조적인 측면이 밝혀지고, 또한 그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도 이뤄질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해석을 한다거나 가치평가를 내린다면 그것은 자칫 공허한 논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메타언어를 통한 상호 텍스트적 글쓰기는 먼저 전후의 맥락 관계가 밝혀진 다음에야 작품에 대한 판단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밝히는 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가치판단의 문제는 좀더 작업이 진행된 다음으로 미루려고 한다.

이 글은 이상 텍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개’ 이미지를 상호 텍스트적 시각에서 밝혀보려고 한다. 이상은 텍스트 여기저기에 ‘개’의 이미지를 차용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상이 읽은 텍스트와 관련을 띠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상이 작품에서 지적한 몇몇 언급들을 토대로 분석의 실마리를 잡아가려고 한다.

(가) 그리고 파우스트를 즐기거라, 메퓌스트는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다.(1권 157면)³⁾

2) 이 글은 이상 문학의 상호 텍스트성을 본격적으로 규명하고 이상의 글쓰기를 해명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작업으로 아래의 글들이 있다.
 「이상소설에 나타난 패로디에 관한 연구」, 『한국학보』 72, 1993. 9.
 「‘종생기’와 복화술」, 『외국문학』 40, 1994. 9.
 「오감도 시 제1호’의 상호 텍스트성」, 『현대시사상』 26, 1996. 3.

(나) 그러나 그 부근에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파우스트』의 노철학자도 없었거나 이것을 조소할 범인(凡人)들도 없었다.(2권 143면)

(다) 에루테루－東京市民은 佛蘭西를 HURANSU라고 쓴다. ERUTERU는 世界에서 第一 맛있는 戀愛를 한 사람이라고 나는 記憶하는데 '에루테루는 조금도 슬프지 않다.(3권 96면)

(가)는 「선에 관한 각서 5」에, (나)는 소설 「12월 12일」에, (다)는 수필 「동경」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상이 괴에테의 작품『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를 탐독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1930년에 발표된 「12월12일」에 『파우스트』에 대한 기록과 1931년의 「선에 관한 각서 5」의 내용으로 보아 이상이 본격적으로 창작을 하기 이전부터 괴에테의 창작소설을 읽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괴에테의 『파우스트』의 내용과 이상의 「1931年(작품 제1번)」, 「禁制」, 「獵의 記」 등의 내용이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가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⁴⁾ 이 가운데서도 「작품 제0번」시리즈(「1931(작품 제1번)」, 「獵의 記(작품 제2번)」, 「작품 제3번」 등은 난해성으로 인해 그동안 이상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본고는 이 시가 이상의 글쓰기 방법을 해명하는데 중요한 텍스트임을 인식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려고 한다.

2. 상호 텍스트로서 『파우스트』 : 메피스토펠레스와 황의 관련성

메피스토펠레스(삽살개)는 이미 잘 알려 있듯 괴테의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전설의 악마로서 파우스트의 길동무가 된다. 먼저

3) 이승훈 편, 「이상문학전집」1, 문학사상사, 1992. 157면. 이하 「이상문학전집」을 인용할 시는 1권(앞의 책), 소설은 2권(김윤식 편, 문학사상사, 1991), 수필은 3권(김윤식 편, 문학사상사, 1992)으로 간단히 인용 구절 끝에 기록.

4) 이상의 작품 가운데서 괴에테의 『파우스트』와 직간접으로 관련을 띠는 작품은 소설 「12월 12일」, 시(더러는 수필에 분류하기도 한다) 「紙碑」, 「황」, 「작품 제0번」 시리즈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후자와 관련하여 밝히고 전자에 대한 고찰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펠레스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저 개가 커다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우리 주위를 돌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는가? 내 착각이 아니라면 불의 소용돌이가 걸어오는 저 개의 뒤를 따라오는 것 같네.(240면)⁵⁾

(나) 나와 함께 이방에 있고 싶으면, 삽살개야, 울어대지 말아! 너처럼 귀찮은 놈을 옆에 두는 것을 견딜 수 없다. 둘 중에서 한 쪽이 이 방을 나가야 한다...환영이냐, 현실이냐? 삽살개가 마구 카지는구나! 힘차게 일어난다. 이것은 개의 모습이 아니다. 나는 무슨 도깨비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단 말인가. 벌써 하마와 같은 모습이 되어 불같은 눈,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웃지, 너는 이미 내것이다! 이런 지옥에서 태어남직한 족속에게는 솔로몬의 주문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240면)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의 출현 장면이다. 파우스트 박사와 바그너가 대화하고 있는 도중에 메피스토펠레스는 한 마리 삽살개(Pudel)로 출현한다. '그레트헨의 비극'라고 불리는 제2악장에 등장하는 이 삽살개는 혼돈과 같은 상황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바뀐다. (가)는 개가 불의 소용돌이를 몰고오는 악마적 본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파우스트가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되는 광경을 서술해주고 있다. 파우스트 박사가 인간적이라면 메피스토펠레스는 악마적인 본성을 지녔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어두워지고, 사람이 싸늘하고 이슬이 내리기 시작' 할 무렵에 파우스트의 주위에 나타난다. 어둠은 파우스트의 의식적인 혼몽, 즉 '미혹의 바다'와 결부된다. 의식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삽살개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의식과 무의식의 상태에서 더욱 무의식의 세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의미한다. 삽살개의 등장은 파우스트의 삶의 과정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한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유일한 벗이자 종으로서 파우스트를 죄의 길로 인도한다.

밤이 이슥하여 獵이 짖는 소리에 나는 熟眠에서 깨어나 屋外 골목까지 獵을 마중나갔다. 주먹을 훤히 잘려 떨어진 한 개의 팔을 물고 온 것이다
보아하니 獵은 일찍이 보지 못했을만큼 몹시 蒼白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主治醫 R醫學博士의 오른팔이었다 그리고 그 주먹 속에선

5) 괴테, 박환덕 역, 『世界文學大全集』 5, 신영출판사, 1987. 240면. 이하 이 책의 인용은 () 속에 면수만 기입.

한 개의 勳章이 나왔다

—犧牲動物供養碑 除幕式紀念— 그런 매달이었음을 안 나의 記憶은 새삼스러운 感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3권, 316면)

황이란 무엇인가. 獵은 黄(黃)과 개(犬, 또는 狗)의 결합으로 누렁이를 의미 한다. 이상은 누렁이를 표현하기 위해 黃狗나 黃犬이라 하지 않고 새로운 造字로서 獤을 만들어 썼다. 황의 등장은 밤이 이슥하여서이다. 어스름은 혼몽한 상태로 의적인 상황이 내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은 의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대상이다. 외계에 존재하는 객관적 대상물로서의 개는 이미 “獵은 나의 牧場을 守衛하는 개의 이름입니다.(1931년 11월 3일 命名) (3권, 316면)”라고 지적했을 때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개는 삼 살개가 인간의 모습인 메피스토펠레스로 변화하듯이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獵의 裸體는 나의 裸體를 꼬옥 닮았다. 혹은 이 일은 이 일의 反對일지도 모른다.(3권, 318면)”라고 언급한 데서 잘 나타나 있다.

황은 ‘R의학 박사의 오른팔’을 물고 출현한다. R의학 박사는 ‘나의 주치의’로 되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이 시의 연작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는 「一九三一年」과 연작형을 이루고 있다.⁶⁾ 이 작품에는 ‘主治醫 盜難--亡命의 소문나다’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이 시에 ‘R청년공작’이 두 번이나 나온다. 그러므로 R의학 박사는 「一九三一年」에 나오는 ‘주치의’나 ‘R청년공작’과 관계가 있다. 황이 R의학박사의 팔을 물고 왔다는 것은 도난된, 또는 망명한 주치의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R의학 박사는 『파우스트』의 파우스트 박사를 변용해 왔음은 아래에서 나타난다.

(가) 나는 훌륭한 측에 들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생활 속으로 발을 디뎌 보려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즉석에서 기꺼이 당신의 것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길동무가 되어 본 후에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드신다면 하인이든 노예든 되겠습니다.(248면)

(나) 이 세상에서는 당신을 섬길 의무를 젊어지고 쉬지 않고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 대신 저승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당신이 같은 일을 내게 해주시면 됩니다.

6) 「황의 기」는 「작품 제2번」으로, 「一九三一年」은 「작품 제1번」, 그리고 「작품 제3번」 등 작품 제1·2·3번으로 연작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 외에 「獵」과도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

(248면)

(다) 오늘 바로 박사 학위 수여 축하연에서 하인으로서 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 다짐하기 위해서, 서너 줄 써 주셨으면 합니다.(250면)

메피스토펠레스는 낙담한 파우스트에게 접근하여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계약을 성립시킨다. 그 계약이란 것은 (나)에 나타난 내용이고, (다)는 이에 대한 일종의 각서를 써달라고 메피스토펠레스가 요구하는 장면이다. 방황과 회의에 빠져 자살을 시도했던 파우스트에게 메피스토펠레스는 새로운 삶을 지향하도록 이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인간적 약점을 째뚫어 보는 악마적인 존재이다. 그는 파우스트를 유혹해 갖가지 죄악을 저지르게 한다.

(가) 내 日課의 重複과 함께 개는 나에게 따랐다. 돌과 같은 비가 내려도 나는 개와 만나고 싶었다. …… 개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 개와 나는 어느새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다. …… 죽음을 覺悟하느냐, 이 삶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느니라 …… 이런 값떨어지는 말까지 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개의 눈은 마르는 법이 없다. 턱은 나날이 길어져 가기만 했다.(3권, 312면)

(나) 나는 獲을 꾸짖었다 主人の 苦悶相을 생각하는 한 마리 畜生의 人情보다도 차라리 이 경우 나는 社會一般의 禮節을 중히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를 잃은 후의 나에게 을 自由-바로 현재 나를 染色하는 한 가타의 눈물—나는 흥분을 가까스로 鎮壓하였다.

나는 때를 놓칠세라 그 팔 그대로를 供養碑 近邊에 묻었다 죽은 그가 죽은 動物에게 한 本意아닌 契約을 반환한다는 形式으로……(3권, 317면)

(가)는 황을 만나 내가 황의 친구로서 그의 절친한 동료가 되었음을 서술해주는 대목이다. 이는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가 얼마 동안 메피스토펠레스와 좋은 길동무가 되는 것과 같다. 나는 황과 가까워질 뿐 아니라 그의 모습을 닮아가는 지경에 이른다.

(나)에서 황과 메피스토펠레스를 엿보게 하는 구절이 드러난다. 먼저 “主人의 苦悶相을 생각하는 한 마리 畜生”이라는 대목에서 황과 나의 관계가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의 그것처럼 주종관계임이 드러난다. 그러면 “죽은 그가 죽은 動物에게 한 本意아닌 契約”이라는 구절은 무얼 의미하는가. ‘죽은 그’는 R의 학박사를, ‘죽은 동물’은 개를 각각 의미한다. 이 대목은 바로 위에 언급한 『파우스

트』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곧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한 계약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곧 황은 삽살개인 메피스토펠레스의 변용이, 그리고 R의학박사는 이상임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 여기에서 'R'은 이상의 이니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는데, 이상이 수많은 아포리즘을 'R'이라는 익명으로 『조선과 건축』에 발표한 사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⁷⁾ 또한 이러한 사실은 '나의 주치의 R의학박사의 오른 팔'이 「作品 第三番」에서 "面刀칼을 견채 잘려 떨어진 나의 팔"로 전너오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적어도 이러한 것들은 작품 「황의 기」가 『파우스트』와 상호 텍스트성을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가) 수천 권의 책을 펼쳐 들고, 도처에서 인간은 괴로워하고 있다. 어쩌다 한 사람쯤 행복한 사람이 있었다, 라는 내용을 읽으란 말인가. 속이 텅빈 해골이여, 왜 나를 향해서 이를 드러내고 웃느냐. 너의 뇌수도 내것과 똑같이 옛날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경쾌한 날을 찾아 어둠 속에서 답답하게, 부지런히 진리를 탐구하며 비참하게 헤맸다는 것이겠지. (226면)

(나) 나는 부질없이 인간 정신의 온갖 보물을 억지로 긁어 모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도사리고 앉아 보니, 마음 속에 새로운 힘이 전혀 솟아나오지를 않는다. 나는 털끝만큼도 커지지 않았다. 한 발짝도 무한한 것에 가까워지지 않았다. (252면)

온갖 학문에 능통한 파우스트는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에 회의를 품는다. 그는 우주의 심원한 본질과 창조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마술에 몸을 맡기기도 하고 지령에 의탁해 해결해 보려고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는 자살을 하려고 한다. 그에게 있어서 지식을 억지로 긁어모아도 한발짝도 무한한 것에 가까워지지 못하게 되자 허무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진다. 그때 메피스토펠레스는 나타나 파우스트를 어둠의 세계, 정욕과 욕망의 세계로 인도한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이성이니 학문이니 하는 인간 최고의 힘을 경멸하라. 환술이나 마술에 빠져, 거짓 정신으로 힘을 얻으려 한다면 뜻대로 하라(253면)"고하여 이성과 학문의 힘을 불신했다. 그는 또한 "모든 이론은 잿빛이고, 생활의 빛나는

7) 『문학사상』 1976년 6월호에는 『조선과 건축』에 R이라는 익명으로 발표된 아포리즘을 이 상의 글로 단정하는 이유를 문체, 사상, 매타포 등의 유사성을 들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나무는 초록이라네(256면)"하여 생활, 곧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우기도 했다. 어쩌면 파우스트는 연구실이라는 인식과 사색의 세계에서 행동과 실천의 현실 세계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태초에 말이 있었다'라는『신약성서』의 구절이 메피스토펠레스를 만나서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로 바뀌는 데에서도 볼 수 있다. 메피스토펠레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파우스트는 인식에서 행동의 세계로 나오게 된다.

知識과 함께 나의 痘집은 깊어질 뿐이었다. 하루아침 나는 食事 定刻에 그냥 잘 못 假睡에 빠져 들어갔다. 틈을 놓치려 들지 않는 獅은 그 金屬의 꽃을 물어선 나의 半開의 입에 떨어뜨렸다. 時間의 습관이 食事처럼 나에게 眼藥을 무난히 넣게 했다 痘집이 知識과 申체했다 세상에 巧妙하기하기 짝이 없는 治療法-그후 知識은 금기야 左右를 兼備하게끔 되었다.(3권, 317~318면)

위의 내용은 지식의 절망-가수상태-황의 출현-치료에 이르는 도정으로 파우스트의 인식 과정과 동일한 맥을 갖고 있다. 곧 파우스트는 이상으로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좌우를 겸비한 지식'이란 인식과 행동을 겸한 세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를 만남으로 인해 극렬한 애욕의 세계와 숭고한 영혼의 세계 모두에 다리를 걸칠 수 있게 되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마녀를 시켜 파우스트에게 약이 든 잔을 마시게 한다. 그리하여 약의 힘에 의해 몽롱한 상태에 빠진 파우스트에게 안일의 즐거움을 가르쳐준다. 파우스트는 거울을 통해 여자를 보게 되고, 그레트헨을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진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회의와 절망에 빠진 파우스트를 관능과 욕망의 세계로 인도한다. 백면서생이었던 파우스트에게 메피스토펠레스의 가르침은 일종의 병집에 대한 치료이다. 황의 치료법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동의 세계로 나아간 파우스트는 온갖 죄악을 범하게 된다. 그는 그레트헨으로부터 육체적 관능과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리하여 메피스토펠레스의 사주를 받아 그레트헨의 어머니와 오빠마저 죽이고, 그레트헨을 감옥에 들어가게 한다.

메피스토펠레스 : (파우스트에게) 선생, 물러서지 말아요! 기운을 내세요. 나를 꼭 붙잡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당신의 면지떨이를 빼세요! 그리고 찌르십시오! 반격을 받는 것은 내가 맡을 테니……

메피스토펠레스 : (파우스트에게) 찌르세요!

발렌틴 : (넘어진다) 내가 졌다!

메피스토펠레스 : 이제 이 작자가 조용해졌군! 자, 돌아갑시다! 빨리 사라져 버려 야지. 살인이 났다고 발칵 뒤집힐 테니 말이오. 결찰쯤 적당히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목숨에 관계되는 재판은 딱 질색이거든요.(304~305면)

위의 대목은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의 사주를 받아 그레트헨의 오빠를 죽이는 장면이다. 또한 파우스트에게 눈 먼 그레트헨은 영아를 살해하여 감옥에 잡혀 가게 된다. 파우스트는 마침내 절망에 빠져 “이놈은 개의 모습으로 밤중에 자주 내앞에 나타나, 아무 생각 없이 거닐고 있는 사람의 발밑에서 둉굴며, 사람이 넘어지면 그 어깨에 매달리려 했다. 이놈을 다시 본래의 이놈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꿔다오(321면)”라고 외친다.

…… 당신은 MADEMOISELLE NASHI를 잘 아십니까, 저는 그녀에게 幽閉당하고 있답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 아냐, 이젠 가망 없다고 생각하네…… 개는 舊式처럼 보이는 피스톨을 입에 물고 있다. 그것을 내게 내미는 것이다…… 제발부탁이네, 그녀를 죽여다오, 제발…… 하고 그만 울면서 쓰러진다(3권, 311면)

황이 나에게 피스톨을 내밀어 그를 죽이도록 하는 이 장면은 메피스토펠레스가 먼지떨이를 파우스트에게 내밀어 발렌틴을 죽게 하는 장면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개는 메피스토펠레스와 견주어 볼 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적어도『파우스트』에서 제2악장인 「그레트헨의 비극」은 「황의 기」와 상호 텍스트적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파우스트』를 도외시하고 「황의 기」를 이해하기란 어렵다. 『파우스트』에서 삽살개 메피스토펠레스의 출현,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의 계약, 인식과 지식의 연구실에서 욕망과 정욕의 행동세계로의 진출, 죄악의 범함, 구원 등의 문제들을 통해 「황의 기」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물론 「황의 기」에서는 구원의 문제는 논의 되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이상의 텍스트로 유입·변형되었는가는 작품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상 시가 갖고 있는 창작적 측면이 무시되어선 안된다. 이 글은 단지 현상으로서의 상호 텍스트를 먼저 확인하고나서 이상시의 창작적 측면을 분석하는 것이 논의의 순서상 합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먼저 상호 텍스트적 측면을 분석한 것이

다. 상호 텍스트적 측면이 밝혀지면 또한 창작적 측면도 밝혀지고 이 둘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수 있다. 그러므로 후자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3. 개의 기호와 상징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펠레스는 사탄의 자식, 악마적인 것, 악령 등 다양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메피스토펠레스의 의미를 독자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파우스트』 내에서, 그리고 인물 파우스트 박사와의 상관 하에서 살피기로 한다.

(가) 아아, 내 가슴속에는 두 개의 영혼이 깃들어 있네. 그 중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려 하네. 하나는 극렬한 애욕을 지니고 매달리는 도구로서 현세에 달라붙어 있네. 다른 하나는 억지로 이 속세를 벗어나 숭고한 영혼들의 세계로 올라가려 하고 있네.(237면)

(나) 나는 항상 부정하는 정신입니다. 그것도 지당합니다. 왜냐하면 생겨나는 모든 것은 멸망하게 마련이니까. 그리고 보면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으면 더욱 좋았을 것을. 그래서 당신네들이 죄악이니, 파괴니 하고 부르는 것, 한마디로 말하자면 악이라고 부르시는 모든 것이 나의 본래의 성분입니다.(242면)

(가)는 메피스토펠레스가 출현하기 직전 파우스트의 심령의 상태를 서술한 내용이다. 그리고 (나)는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에 깃든 또 다른 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파우스트에게는 극렬한 애욕에 매달려 현세에 달라붙어 있는 영과 숭고한 영혼의 세계로 올라가려는 영이 존재한다. 후자가 신적인 것으로서 파우스트 본연의 것이라면, 전자는 악마적인 것으로서 메피스토펠레스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또 다른 자아이다.⁸⁾ 이렇게 볼 때,

8) 메피스토펠레스는 ‘의인화된 파우스트의 성격’이나, 파우스트의 ‘나쁜 자아’, 또는 ‘파우스트 내부의 부정의 정신’으로 해석된다. 해겔은 이를 “악 그 자체, 즉 질투·비겁 그리고 파렴치는 역겨울 뿐이다. 악마 그 자체는 나쁘고, 미학적으로 불필요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악마는 스스로가 거짓이고, 그래서 매우 무미건조한 인물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윤

이 둘은 인간의 대립적인 본성으로 볼 수 있다. 프로이트의 표현을 빌자면, 전자는 자아나 초자아(Ego or Super-ego), 후자는 이드(Id)에 각각 대응한다고 하겠다.

그러면 이상의 작품에서 ‘황’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먼저 이상의 작품에 나타난 개의 이미지를 통해서 ‘황’의 의미를 접근해 보기로 한다. 개는 시·소설·수필 등 이상의 많은 작품에 나타난다.

(가) 길을 걸어본댔자 所得이 없다. 낮잠이나 자자. 그리하여 개들은 天賦의 守衛術을 忘却하고 낮잠에 沉溺하여 버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墜落하고 말았다.

슬픈 일이다. 젖을 줄 모르는 벙어리 개, 지킬 줄 모르는 개으름뱅이 개, 이 바보 개들은 伏날 개장국을 끊여 먹기 위하여 村民의 犠牲이 된다. 그러나 불쌍한 개들은 陰曆도 모르니 伏날은 몇 날이나 남았나 全然 알 길이 없다. (3권, 146면)

(나) 밤床이 오기까지 나는 이제 한 번 뜰 가운데를 逍遙하였다 그러자 檻樓한 강아지가 한 마리 어디서 나타났는지 끼어들었다. 이 旅人宿에선 개를 기르지 않으니 이건 다른 집 개일 것이다. 내겐 전혀 拘碍없이, 그러면서도 内心으로 몹시 나를 두려하는 듯, 나에게서 약간 距離를 둔 地點에 걸음을 멈추는 氣色도 없이 머물러 서서,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바닥 위를 벌름거리며 냄새만 연신 맡는다… …暗澹할뿐이다. 그러나 개도 개지, 글세 아무것도 없는 땅바닥을 热心히 몇번식이나 냄새를 맡는 것은 얼마나 愚劣한 일이뇨 개는 개다. 나는 人間으로 태어나서 幸福하다.—역시 이런 결 생각는 自體부터가 아무것도 없는 땅바닥을 냄새맡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3권, 127-128면)

(다) 나의 腦髓가 擔任 支配하는 사건의 大部分을 나는 獲의 位置에 賽藏했다—冷却되고 加熱되도록—

나의 規則을—그러므로—리트머스紙에 썼다

배—그 속—의 結晶을 加減할 수 있도록 小量의 리트머스液을 나는 나의 食事에 결들일 것을 잊지 않았다

나의 배의 發音은 마침내 三角形의 어느 頂點을 정직하게 출발하였다(3권, 318면)

(가)는 수필 「倦怠」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개는 일반적인 개다. 그러므로 개라는 용어는 실재의 개를 가르키는 기호로서의 의미밖에 지니지 못한다. 그러나 (나)에서 개는 개이지만 인간과 닮은 개로 (가)의 의미와 조금 다르다.

세훈, 「파우스트」의 배경과 그 이데올로기적 성격, 「파우스트 연구」(한국괴테학회 편), 문학과지성사, 1992. 41-42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외계에 존재하는 개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상과 동일시되는 경향을 지니기도 한다. 이상의 작품에 있어서 '개'라는 용어는 단순히 객관적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의 의미를 넘어서 상징적인 차원의 의미를 지니는 것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넓다. 후자의 경우 '황'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의 문학에서 개의 이미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칸트는 개라는 개념을 '네 발 동물을 일반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규칙'으로 보면서도 가능한 형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⁹⁾ 그는 형상이란 산출적 구상력이 그의 경험적 능력에 의하여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윗 글에서 (가)에서 (나)를 거쳐 (다)로 이르는 과정은 경험에 의한 구상력의 차원에서 개의 형상이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개와 인간의 동일시를 통해 드러난다. 마치 "人間이 食事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들을 때, 개의 그것과 똑같다는 것을 發見"(3권, 125면)하는 일과 같다. 인간과 개가 동일하다는 것은 다다이스트적 면모를 보여준다. 특히 초기 시 「선에 관한 각서 5」에서 '메퓌스트는 나이다'고 한 진술은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해준다. 인간과 개의 동일시 현상은 개라는 기호적 의미에 상징적 의미가 참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다)에 이르면 상징적인 의미로 완전히 건너오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의 선형적 구상력이 개입하게 된다. 괴테에 있어서나 이상에 있어서 개는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을 지칭하는 규칙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경험적 개념이 보편적 개념으로 전이되어감을 보여준다.

이제까지 황, 또는 개는 이상의 동물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¹⁰⁾ 「황의 기」에서 예문 "황의 裸體는 나의 裸體를 꼬옥 닮았다. 혹은 이 일은 이 일의 反對일지도 모른다. 나의 沐浴시간은 황의 勤務시간 속에 있다"(3권, 318면)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황은 나의 牧場을 守衛하는 개의 이름(3권, 316면)"에서 이상의 또 다른 모습으로 건너오는 과정이다.

9) I. Kant, 박종홍 역, 『순수이성비판』, 대양서적, 1978. 154면.

10) 이어령은 이상 작품에서 '개는 이상의 동물적 본능을 상징'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김윤식 역시 '결국 황은 이상의 거울 속의 나(정신)와는 반대로 나 속에 깃들여 있는 동물성(육체)을 상징한다'라고 하여 동일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김윤식, 『이상문학전집』 3, 앞의 책, 321면)

(가) 밤이 이슥하여 獵이 짖는 소리에 나는 熟眠에서 깨어나 屋外 골목까지 獵을 마중 나갔다. 주먹을 권 채 잘려 떨어진 한 개의 팔을 물고 온 것이다

보아하니 獵은 일찍이 보지 못했을 만큼 몹시 蒼白해 있다(3권, 316면)

(나) 봄은 五月 花園市場을 나는 獵을 동반하여 걷고 있었다 玩賞花草種子를 사기 위하여 …… 獵의 날카로운 嗅覺은 播種後의 成績을 소상히 諺言했다 陳列된 온갖 種子는 不發芽의不良品이었다 하나 獵의 嗅覺에 합격된 것이 꼭 하나 있었다 그것은 大理石 模造인 種子 模型이었다 나는 獵의 嗅覺을 믿고 이를 마당귀에 묻었다(3권, 317면)

(다) 정수리 언저리에서 개가 짖었다. 不誠實한 地球를 두드리는 소리

나는 되도록 나의五官을 取消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心理學을 포기한 나는 기꺼이—나는 種族의 繁殖을 위해 이 나머지 細胞를 써버리고 싶다

바람 사나운 밤마다 나는 차차로 한 뜻음의 턱수염 같이 되어버린다.(3권, 320면)

위의 예문 (가)는 황의 출현, (나)는 나와의 동반, (다)는 나와의 혼용일치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결국 황은 이상의 또 다른 모습이다. 별개적으로 존재하면서 이상의 일부이기도 하다.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펠레스는 악령, 또는 사탄의 자식 등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이상에게도 황은 인간의 이중적 감정, 즉 사악한 특성을 갖는다. 이상은 『파우스트』의 메피스토펠레스를 변용하여 황을 만든 것이다. 그러면 왜 삽살개가 아닌 누렁이로 하였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이미 주어져 있는 듯하다. 여기에서 삽살개라고 하는 좋은 재래종과는 다른 의미로 서구의 대표적인 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그리고 누렁이는 서구적인 종과는 다른 동양, 특히 한국 개를 지칭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문학에 일반적인 비유로 드러난다.¹¹⁾ 이상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 즉 또 다른 자아를 황구에 기대어 표현한 것이다.

4. 또 다른 시의 개의 이미지 분석

11) 누렁이(黃狗)가 우리의 민족을 상징함은 이후 천승세의 「黃狗의 悲鳴」에도 잘 드러난다. 주인공인 나는 은주와 미군 병사의 성교장면에서 개의 교미장면을 떠올리는데 조그만 암개인 황구는 은주를, 종적 모를 수개는 미군 병사를 각각 비유한다. (천승세, 『황구의 비명』, 창작과비평사, 1988. 212, 219면)

이상의 시에는 개의 이미지와 관련된 작품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위에서 밝힌 황의 이미지를 통해서 시의 구절들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

三

나의 顏面에 풀이 둘다. 이는 不搖不屈의 美德을 象徵한다. 나는 내 자신이 더할 나위 없이 싫어져서 等邊形 코오스의 散步를 매일 같이 계속했다. 疲勞가 왔다.
아니나 다를까, 이는 一九三二年五月七日(父親의 死日) 大理石發芽事件의 前兆이었다.

허나 그때의 나는 아직 한 개의 方程式無機論의 热烈한 信奉者였다.

四

腦髓替換問題 보다이 重大化된다.

나는 남몰래 精虫의 …元論을 固執하고 精虫의 有機質의 分離實驗에 成功하다.
有機質의 無機化問題 남다.

R青年公爵에 邂逅하고 CREAM LEBRA의 秘密을 듣다. 그의 紹介로 梨蠟과 알게 되다.

例의 問題에 光明 보이다.

五

混血兒Y, 나의 입맞춤으로 毒殺되다. 監禁당하다.

六

再次 入院하다. 나는 그다지도 暗澹한 運命에 直面하여 自殺을 決意하고 남몰래 한 자루의 匕首(길이三尺)을 人手하였다.

夜陰을 타서 나는 病室을 뛰쳐나왔다. 개가 짖었다. 나는 이쯤이면 匕首를 나의 배꼽에다 찔러 박았다.

不幸히도 나를 逮捕하려고 뒤쫓아온 나의 母親이 나의 등에서 나를 얼싸안은 채 殺害되어 있었다. 나는 無事하였다.(1권, 236~237면)

위의 예문은 「1931년(작품 제1번)」이다. 이 작품과 「황의 기」는 연작으로 서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이미 「작품 제1번, 제 2번」이라는 데서도 그 연작이 확인되지만, 「1931년」 역시 “夜陰을 타서 나는 病室을 뛰쳐나왔다 개가 짖었다. 나는 이쯤이면 匕首를 나의 배꼽에다 찔러 박았다(1권, 237면)”로 개와 관련된다 는 점에서 일치한다. 여기에서의 ‘개의 짖음’ 역시 ‘황의 짖음’과 결부된다. 그러

면 “안면에 풀”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황」의 “개는 白髮老人처럼 웃었다…… 수염을 단 채 떨어져 나간 턱…… 그러나 개의 눈은 마르는 법이 없다, 턱은 나날이 길어져 가기만 했다”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즉 ‘풀’은 수염으로 나의 얼굴에 수염이 돌아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수염이 돌아난다는 것은 곧 황으로 변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텍스트의 이면에 부친이나 모친이 등장하는 등 『파우스트』와는 달리 이상의 실제 삶과 결부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위의 예문에 등장하는 ‘父親의 死日’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작품 속에 들어간 것이다.¹²⁾ 이는 그의 문학이 상호 텍스트성을 띠고 있더라도 이상의 실제 삶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이상 문학에 나타난 그의 삶의 편린들은 상호 텍스트성만큼이나 중요하고, 그러므로 가볍게 처리되어선 안된다.

그리고 “뇌수체환문제”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다시 「황의 기」에 “두 個의 腦髓 사이에 생기는 連結神經을 그는 암이라고 완고히 주장했었다”(3권, 316면)와 “나의 腦髓가 擔任 支配하는 사건의 大部分을 나는 황의 位置에 賯藏했다—冷却되고 加熱되도록—”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두 개의 뇌수란 이상 자신의 뇌수와 황의 뇌수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외모가 황으로 바뀌면서 뇌수(정신)도 황의 것으로 대체됨을 의미한다. 또한 이상의 유고 「무제(2)」에 나오는 구절 ‘죽은 개의 에스프리’(3권, 299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¹³⁾ “유기질의 분리실험”이란 것도 바로 황의 성격과 이상의 성격의 분리화 실험을 의미할 것이다. 이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인물의 성격분리와 유사하다. 그래서 이상은 다시 「황의 기」에서 “나는 두려움 때문에 나의 얼굴을 變裝하고 싶은 오직 그 생각에 나의 껴칠한 턱수염을 손바닥으로 감추었다”(3권, 320면)하고 읊고 있다. 수염이 돌아난 인간은 황을 의미한다. 위의 구절들은 이상이 나(인간)와 황(누렁이) 사이를 넘나드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바람

12) 종로구청에 보관된 재적등본에 의하면, 이상의 백부 김연필은 “昭和 七年 五月 七日 午後 二時 京城府 通洞 百五拾四에서 死亡”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3) 이상의 유고 「무제(2)」 역시 ‘작품 제0번’ 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작품에 ‘바른 팔에 면도칼을 없었다’, ‘나의 軀體全面에 개들의……穿孔의 흔적’, ‘~방정식’ 등 유사한 이미지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므로 시리즈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사나운 밤마다 나는 차차로 한 묶음의 턱수염같이 되어버린다”(3권, 320면)고 고백하는 것이다. 밤은 이상의 또 다른 자아가 태동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또 한 ‘R青年公爵에 邂逅하고 CREAM LEBRA의 秘密을 듣다’는 것은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를 만나 ‘안일의 즐거움’, ‘마음 속에 기쁨이 넘쳐 큐피티 꿈틀거리며 뛰어 다니는 것’(273면)을 가르쳐 주는 맥락과 연결된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에게 성의 유희를 알려주고 그레트헨을 소개해준다. 이것은 이상이 또 다른 자인인 R青年公爵에 邂逅하고 CREAM LEBRA의 秘密을 듣는 것과 같다. ‘LEBRA’는 造字로 ‘LABRA’의 변형이거나, 이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LABRA’는 입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LABRUM’의 복수이다. ‘CREAM’과 합쳐 ‘성(특히 여성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윗 구절의 ‘정충의 유기질의 분리실험’과 결부되어 성의 유희 또는 즐거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梨嬌’은 바로 그레트헨의 변용임이 잘 드러난다. 또한 5단락의 ‘混血兒Y’는 파우스트와 그레트헨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변용으로 볼 수 있다. 이 아이는 그레트헨에 의해 연못에 벼려져 죽음을 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그녀는 감옥에 갇힌다. 그녀의 죄는 실상 파우스트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위의 ‘혼혈아’ ‘독살’ ‘감금’ 등은 그러한 광경을 변용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그레트헨은 종국에 구원을 얻지만 이양은 죽고만다. 그러한 사실은 12단락에서 ‘別報, 梨嬌이 R青年公爵 家傳의 밭(簾)에 감기어서 慘死하다’로 적고 있다. 결국 그레트헨의 구원으로 끝난 괴테의 『파우스트』와는 달리 이양은 비극으로 끝맺고 있다.

2

留置場에서 즈로오스의 끈마저 빼앗긴 良家집 閨秀는 한 자루 가위를 警官에 세要求했다.

— 저는 武器를 生産하는 거예요

이윽고 자라나는 閨秀의 斷髮한 毛髮

神은 사람에게 自殺을 暗示하고 있다…… 고 禿頭翁이여 생각지 않습니까?

나의 눈은 둘 있는데 별은 하나밖에 없다 廢墟에 선 눈물-눈물마저 下午의 것인가 不幸한 나무들과 함께 나는 우두커니 서 있다.(3권, 324면)

이 시는 「작품 제3번」의 일부이다. 「1931년(작품 제1번)」과 위의 작품의 상호

관련성은 작품의 제목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작품 제0번' 시리즈는 '작품 제2번'인 「황의 기」를 통해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1931년」의 「주치의 도난사건」, 「R청년공작에 해후」가 「황의 기」에 이르러 '주먹을 권채 잘려 떨어진 한 개의 팔(주치의 R의학박사의 오른팔)'로, 그리고 「작품 제3번」에서 '면도칼을 권 채 떨어진 나의 팔'로 연결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위의 글은 그레첸이 영아살해죄로 감옥에 갇혀 심판을 기다리는 장면이 변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 내가치던개는튼튼하대서모조리實驗動物로供養되고그中에서비타민E를지닌
개는學究의未及과生物다운族姓로해서博士에게흡연얻어맞는다. 하고싶은말을개짖듯
배앓아몽던歲月은숨었다. 醫療大學허전한마당에우뚝서서나는必死로禁制를알는(患)
다. 論文에출席한억울한觸體에는千古에氏名이없는法이다.(1권, 75면)

(나)’ 이房에는 門牌가없다 개는이번에는 저쪽을 向하여짖는다 嘲笑와같이 안해
의 벗어놓은 버선이 나같은空腹을 表情하면서 곧걸어갈것같다 나는 이房을 침침이
닫치고 出他한다 그제야 개는 이쪽을 向하여 마지막으로 슬프게 짖는다.(1권, 199면)

(가)’는 시 「危篤(禁制)」의 전문이고, (나)’는 「紙碑」의 일부이다. 이 두 시가 모두 「황」, 「황의 기」와 관련된 주지의 사실이다. (가)’와 (나)’가 모두 1936년에 발표된 것으로 보아 「황」이나 「황의 기」가 변형되어 형성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위 시와 관련된 구절을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가) 거기에 나의 牧場으로부터 護送돼 가지끈 解剖臺의 이슬로 사라진 술한 개
들의 恨많은 魂魄이 뽑게 하는 殺氣를 나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더더구
나 그의 手術室을 찾아가例의 腿의 切斷을 그에게 依賴해야 했던 것인데—(3권,
317면)

(나) 가엾은 개는 저 미움기 짹없는 문때 裏面밖에 보지 못한다. 개는 언제나 그
문때 裏面만을 바라보고는 憤懣과 厥世를 느끼는 모양이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모
양이다. 개는 내 눈앞에서 그것을 脾睨했다.

…… 나는 내가 싫다…… 나는 가슴속이 막히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러나 그렇게 느끼는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없었다. …… 어디? ……(3권, 312면)

위의 (가)와 (나)가 각각 (가)’와 (나)’로 변형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구절의 단순한 유사성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다.
(가)’의 개는 황을, 박사는 ‘R의학박사’를 칭함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나)'개의 짖음 역시 「황의 기」에서의 그것과 관련된다. 문패 없는 방을 향하여 개는 짖고, 나는 출타하게 된다. 이를 통해 「危篤(禁制)」과 「紙碑」는 「황」, 「황의 기」와 내적 상호 텍스트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괴에테의『파우스트』와 상호 텍스트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변용을 통한 텍스트의 재창출에 이상의 본질적인 미학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5. 마무리

이제까지 이상의 시를 상호 텍스트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상의 시 '작품 제0번' 연작은 괴에테의『파우스트』와 상호 텍스트적 입장에 놓여있다. 이를 시에서 '황'은 메피스토펠레스적 관점에서 이해할 때 보다 명료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어떤 텍스트가 기존의 텍스트와 상호 텍스트성을 띠고 있을 때 이후에 나온 텍스트의 의미는 선행의 텍스트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작품 가운데서 난해한 작품이나 작품의 구절들은 상호 텍스트적 글쓰기에 말미암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들은 상호 텍스트적 관계에 있는 선행텍스트를 찾아내고 그 의미망을 파악할 때 쉽게 이해된다. 그것은 바로 상호 텍스트적 글쓰기에서 텍스트의 의미망은 선행텍스트의 의미망을 통해 보다 분명히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상은 “파우스트를 즐기거라, 메黢스트는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다”(1권 157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성을 선과 악의 대립적 측면으로 보고 있다. 이는 파우스트가 인간을 도덕적 본성과 욕망적 측면으로 바라본 것과 같다. 이러한 인간의 이중적 성격은 ‘지킬 박사적’, ‘하이드적’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은 또 다른 글에서 “일상생활의 중압이 나에게 교양의 淘汰를 부득이하게 하고 있으니 또한 부득이 나의 빈약한 이중 성격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서 ‘하이드 씨’에서 ‘하이드 씨’로 이렇게 진화시키고 있습니다.(3권, 24~25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것은 이드적인 자아, 욕망하는 자아가 일상적 자아, 생활하는 자아를 압도하고 있음을 진술한 것이다. 자신의 속에 악령적 인간, 메피스토펠레스가 들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황이란 범박하게 말

해 인간의 하이드적 속성이라 할 수 있다. 개는 가장 권태로운 동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일상생활의 중압에 의한 권태는 바로 지킬 내지 파우스트적 속성에서 하이드적 내지 메피스토펠레스적 속성으로 전화하게 만든다. 이상에게 있어 권태(정신적 권태)는 곧 자의식의 과잉을 냉고 자의식의 과잉은 글쓰기의 기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 텍스트적 글쓰기가 진행된다. 이것은 바로 글쓰기 자체를 놀이로 생각하는 메타언어적 글쓰기이다. 이상의 글쓰기의 한 축을 이루는 메타언어적 글쓰기는 자의식, 욕망, 권태라는 모더니즘적,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글쓰기의 바탕 위에 서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이 충분히 검토될 때, 이상의 글쓰기 본질이 더욱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